

# 27만 특수근로자도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  
방문교사·방문판매원·설치기사  
중소사업주 136만명 가입 추진

당정(여당·정부)은 7일 산업재해보험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27만4000명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오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노무 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 분야와 화물차 주인 등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먼저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가정 방문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5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한다.

당정은 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업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장은 "당정은 확정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8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에

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한 후 특수고용근로자 대상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지방銀 여성임원 단 2명... '유리천장' 여전

**외국계 女임원 비율 증가세**  
지방은행 6곳 중 4곳 '전멸'  
2곳마저도 각각 한 명 불과

국내 4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여성 임원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국책은행과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은행권의 여성 임원 비중은 최대 10% 안팎에 불과해, 금융권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제연구소가 7일 폴리 '은행권 유리천장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6%로, 2017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외국계·시중銀, 女재원 확보 '노력'**  
은행별로 살펴보면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6곳 중 절반인 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KB국민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이 10%를 넘겼다. 이 중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7년 대비 각각 9%포인트, 7%포인트 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여성 임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2명의 여성 상근 임원을 등용해 전체 임원 33명 중 여성 임원이 6%를 차지했다.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KB국민은행의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과 미등기상근임원 2명을 포함한 3명으로, 2017년 이후 매해 같은 숫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3%→7%→6%)과 우리은행(3%→6%→6%)도 비슷하게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의 신규채용도 늘었다.

신한은행의 여성 근로자 채용 규모와 비율은 눈에 띠게 증가해, 2017년 대비 지난해 20.8%포인트 늘었다. 현은주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의 성별 비율 관련 항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여성 신규 채용비율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2.1%포인트, 1%포인트 늘어 3.2%포인트(52.2%→49%) 줄어든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여성 근로자의 신규 채용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중은행 평균적으로 여성의 일반직 비율은 51%인데 반해, 책임자 비율은 32%로 나타나 중간관리자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국책銀 유리천장 '걷고'**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은 여전히 보수적인 인력 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6개 지방은행 중 여성 임원이 없는 은행은 대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으로 전체의 절반을 기록했으며, 올해 광주은행의 여성 임원이 제외되면서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은행은 4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지방은행 2곳의 여성 임원 수 역시 각각 한 명에 불과해 여성 임원 비율은 4~6% 수준을 기록했고, 전체 임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여성 임원 비율은 유지됐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여성 임원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한 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개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 연구원은 이에 대해 "최고 관리직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시장에서 머무는 여성 근로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수도 있지만, 충분한 성과와 자질이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저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나 국책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이 적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내 여성 대표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성적 표와 달리 산업 부문별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산업 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DGB대구은행 '창립 52주년' "지혜 모아 비전 수립해야"

**김태오 대구은행장**

"DGB만의 이야기 만들어  
100년 역사 함께 써가자"

김태오 은행장은 7일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52년이란 역사는 고객의 인생과 대구은행의 역사가 함께한 시간이다"며 "DGB대구은행도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수립해 DGB만의 이야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은 이날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100년 역사를 함께 써가자"면 이 같이 말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10월 7일 국내 최초의 지역은행으로 설립됐다.

김 행장은 "52년이라는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으로 고객의 인생과 DGB대구은행의 역사가 함께한 시간이다"면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길가메시의 서사시' 점포판에서 삶의 진리를 엿볼 수 있듯이 우리도 지혜를 모아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기념식에서는 반세기 은행 성장

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난 1967년은 행 창립 멤버 43명 중 4명을 초청해 은행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은행 생존 기로에서 적극적 후원과 동반상생을 함께 한 공헌고객에 대한 명예은행장 위촉 행사 등도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이날 지역 최초 금융박물관인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실시했다. 대구은행 40주년에 맞춰 개관한 금융박물관은 지나온 역사를 미래 후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자료를 기증받았다.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은 은행 및 금융 전반에 관한 사료를 기증받고, 52주년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조만간 창립 52주년을 기념해 매주 신규 런칭 앱 'IM#'을 통해 매주 한건씩 지역 소외계층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 댓글 한 건당 1000원씩 최대 200만원을 후원하는 'DGB 이웃 사랑 희망 드림'을 실시한다. 또 비대면 대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마케팅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태오 대구은행장이 창립 52주년을 맞아 대구 수성구 본점에서 기념식을 갖고 화이팅을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 저축銀, 영업점 줄어도 곳간은 '두둑'

전국 점포 300개 불과, 감소세 지속  
자산규모 70.8조… 전년比 1.8%↑  
비대면 강화로 운용 효율성 높아져

저축은행의 영업점이 줄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산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은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점포가 약 300여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보기 위해 고객들이 영업점으로 몰리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법상 영업점 개설이 까다로워진 동시에 저축은행계가 모바일뱅킹을 핵심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점포수와 관계없이 꾸준한 자산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 영업점은 총 306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14개, 지난 분기에는 310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동시에 업계의 비대면 서비스(PC·모바일뱅킹 등)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 상반기 중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액은 6조417억원으로 직전분기(5조4534억원) 대비 1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는 9091만건으로 15.5% 늘었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저축은행에 접근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규모도 꾸준하게 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영업중인 79개 저축은행 총 자산은 70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69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1.8%) 증가한 셈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자산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BI저축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가 8조18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늘어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웰컴저축은행이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면서 젊은 고객들의 수신액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영업점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OK저축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은 있지만 점포, 인력을 늘려 대면영업을 위주로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